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출범

신경림 간호협회장 위원으로 위촉돼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분야 주요 정책방향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6월 19일 개최했다.

이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보정심 위원으로 위촉됐다.

보정심은 2005년 국무총리 주관으로 두 차례 개최된 후 이번에 13년 만에 재개됐다. 2010년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됐다.

보정심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7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수요자와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보정심을 구성·운영함에 따라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0년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은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보정심에서 이를 심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보건의료분야 계획 전반을 조망하고 체계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종합계획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인구구조와 질병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보장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전체를 조망하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7년 65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우리나라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만성질환과 노인의료비 증가 등 보건의료 수요도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래 환경변화를 다각적으로 조망하고, 국민에게 더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설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은 큰 틀에서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첫째로 법정부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생생국민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간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물론 지역사회, 학교, 근로환경, 환경요인 등을 포함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로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제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보건의료 관련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보건·복지 연계 전략을 수립한다. 실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19년 국무회의 심의를 목표로 올해 연말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주혜진 기자 hjo@koreanurse.or.kr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 도입된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온라인 본인확인 근거 마련

있도록 지난 3월 27일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했다.

이번 입법에에는 개정된 의료법 시행(9월 28일)에 앞서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그동안 제기된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 대상 매체는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인터넷 매체, SNS이다.

민간 심의기관으로서 자율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 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학식이 풍부한 사람 포함)을 갖춰야 한다.

소비자단체의 경우에는 공정거

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설립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개설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 및 진료시간과 같은 단순 사설관계의 경우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등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 폰의 증진, 처방전 서식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온라인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에서 환자 방문을 요구하는 등 환자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온라인 본인확인 방법을 마련해 환자편의를 증진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은 청소년증, 학생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각 평가별 주요 지표 결과를 보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시범운영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사업으로 시작됐다. 전문상담센터에서는 고객의 폭언·폭행, 대형 산업재해, 동료자살 등 충격적인 노동사건 발생 시 사업장 노동자의 심리안정과 일상복귀를 지원한다.

한편 그동안은 전국 21개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산재트라우마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한 대응 요구 증가로 근로자건강센터의 트라우마 상담역량에 한계가 있고, 적기대응도 어려움이 있어 전문 상담센터를 시범운영하게 됐다.

박영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그동안의 산재예방 노력이 안전사고예방에 집중돼왔으나, 앞으로는 노동자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4대 암 모두 치료 잘하는 병원 81곳 선정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등 4대 암을 모두 잘 치료하는 1등급 의료기관으로 81곳이 선정됐으며, 전국에 고루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4대 암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와 건강정보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16년 1~12월 만 18세 이상 암 환자 치료받은 내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각 평가별 대상기관과 환자 수는 대장암 239개(1만8261명), 유방암 193개(8624명), 폐암 120개(1만1241명), 위암 217개(2만3692명)이다.

평가지표는 '4대 암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이 전국에 고루 분포된 것은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를 위해 인력·시설·장비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수술과 항암화학요법 등 치료과정에서 표준화된 진료시스템을 갖춘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암은 사망률 1위의 위협적인 질병으로 서구화된 식습관,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라 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사망자 중 암으로 사망하는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내 암 사망률은 2010년 10만명당 121.4명에서 2016년 153.0명으로 26%가 증가했다.

4대 암 중 암 사망률 1위는 폐암, 암 발생률 1위는 위암이다. 대장암은 발생률과 사망률에서 각각 2위와 3위다. 여성암 중에서는 유방암이 갑상선암에 이어 두 번째로 발생률이 높다.

주혜진 기자 hjo@koreanurse.or.kr

산업간호사회, 근로자 대사증후군 관리 적극 나서

산업간호사회(회장 정혜선)는 '서울지역 사업장 근로자 대사증후군 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안전보건공단과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이 공동주최했으며, 보건관리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업장 조성을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업무상질병 예방관리 방안'·'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활용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장의 대사증후군 관리 우수사례' 등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서울지역 보건소와 보건 관리자들은 간담회를 갖고 대사증후군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혜선 회장은 "대사증후군 관리를 잘하는 우수 보건관리자를 선정해 올해 11월경 표창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서울지역 근로자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산업간호 사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



제5차 한·중·일 간호학술대회

논문초록 발표자 및 등록비 지원 안내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제5차 한·중·일 간호학술대회 논문초록(구두 및 포스터) 발표자를 지원하며, RNcard 사용자에 대해 등록비를 지원합니다.

■ 대회일정 : 2018. 9. 16(일)~9. 18(화)

■ 장소 : 일본 도쿄, United Nations University

■ 학술대회 등록비 : 400,000원(USD 350)

■ 영문논문초록 모집마감 : 2018. 7. 2(월)

■ 논문초록 발표자 지원

구 분	자원금(원)	지원 인원수	기 준
구두 발표자	300,000원/인	16명 이내	- 공동발표인 경우, 대회에 참석한 사람 중 1인(발표자)에게 지급
포스터 발표자	200,000원/인	31명 이내	- 1인이 2건 이상 발표한 경우, 1건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급

* 1인이 구두/포스터 2건 이상 발표한 경우, 구두발표 지원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급

** 하나 RNcard 지원과 종복 지원 가능

■ RNcard 사용자 등록비 지원

지원 대상	하나 RNcard로 300만원 이상 사용한 회원 (2017. 2. 14.~2018. 9. 19.)
지원 금액	40만원 지원(1인당 등록비)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edu.kna.or.kr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신경림 인쇄인 김갑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0406368

◇ 대한간호협회 (02) 2260-2511

서울시 종로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 간호사신문 (02) 2260-2571

FAX (02) 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 2260-2571

nursesnews.co.kr

30년 전통 대방열림고시학원

기술직 공무원 ~간호직~ 보건직 ~보건진료직~ 의료기술직

국가 면허시험 ~간호사 국가고시~ 위생사

연세대 RN-BSN

최다 합격자 + 입소문, 합격생이 적극 추천하는 기술직 명문 학원



★ 대방열림고시학원의 강점 ★

- 拇指 과목별 수험생 선호도 1위 교수진 구성
- 拇指 매년 기술직 공무원 최다합격자 배출
- 拇指 수강생이 가장 많고 입소문으로 유명한 학원
- 拇指 학원직강을 그대로 활용한 최신 동영상강의
- 拇指 최고의 시설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
- 拇指 최신 스마트폰 동영상 강좌 시스템
- 拇指 체계적인 시스템 및 학원직강 연중 무중단 진행

매월 초 개강 / 수시 등록 가능 / 학원강의 연중 순환식 진행

이론반 > 심화반 > 기출문제반 > 단원별 · 모의고사 문제풀이반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가 가장 많이 응시하는 공무원

8급 간호직 공무원

간호직 공무원 시험 상세안내 보러가기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상담 문의 02-823-47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8길 4
신한해스티아 2층 (영등포역 5번출구)

www.yulimgosi.com